

1.1 여성민중 생존권쟁취 투쟁

△ 여성노동자투쟁

여성노동시장은 1989년 3회 호황기를 분수령으로 급격히 약화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여성노동시장을 바라보았을 때, 단시간노동, 단기간 계약노동 등 비정규직노동의 확대 더더군다나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서비스산업의 폭발적인 증가로 여성노동시장에서 서비스 부문이 급속히 확장되었고, 여성노동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더욱 구조화되었습니다. IMF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주된부부터 '약한 거지'의 형태로 드러났던 바, 그러한 고리는 바로, 비정규직 고용형태, 기존, 여성이라는 결합관계에 속한 사람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형태였습니다. IMF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한국노동시장에 기형적인 형태로 구조화되어온 모습이 여성노동자에게 집약되어 침입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IMF 직후 드러났던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훨씬 더 구체적이었는데, 몇몇 드러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D 40대 중년여성 노동시장 퇴출-실적여성노동자의 문제 2) 오성보 의원-박근민 일선 출신 등을 이유로 한 해고 3) 경기권에서 비정규직으로 여성노동시장의 급격한 재편성 4) 신규여성실업자의 문제도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각인 전국여성노동자의 연대를 통하여 전이대립적인 여성노동자 생존권을 조금씩 고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투쟁으로 전진해 하고 반미투쟁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은 이제 비할 팔가지 열라니 있고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투쟁들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3.8절 때 전국여성노동자의 한국여성노동자회담의에서 민주노총과 서울여성노조에서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결의한 것을 보더라도 전국 9개 지역에서 '비정규직 여성권리찾기 운동본부'가 발족됨을 보더라도 여성민중의 문제가 차가워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삶 또한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여성에게 유학과 저축을 하고 배후타를 만나 열라를 향해 나가고 있지만 신규여성실업자의 선진물 한학이 40%로 취업을 한다더라도 지금의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여성노동자의 삶이 고통은 만중의 삶은 이상없이 투쟁부채만을 일삼은 김대중정권의 반여성정책, 반민중정책, 사대매국정에 기인한 것이며 그 때문에는 한국경제를 시민경제화 하여 후두에게 집어삼키려는 미국제국주의가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노동자의 연대를 강화하는 속에서 생존권의 투쟁을 변경된, 반미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 반여성적인 노동정책을 펼치는 김대중 정권 퇴진시키고 여계의 경제현황을 분쇄하여야 합니다.
- 여성노동을 착취하는 대면자본과 이익고용자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 여성의 고용을 창출하고 여성의 취업대비를 마련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조건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리휴가제지연과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보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 사업장내에서의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한 노동권이 인정되기 위한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
- 분단의 현실에서 기인한 문제의 본질을 온세시키고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군부투자산업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

1.1.1 노동자기활동과 예비조합원 모집

전국여성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기활동은 IMF이후 여성노동시장에서 구조적인 모순에 대항하려는 여성노동주체중 신규실업노동자와 할 수 있는 여태상을 조직화하기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노동자기는 학내에서 여성노동운동들 대중적으로 끌어내리는 목적 하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내에서 끌어내갈 여성노동운동의 내용상 및 사업기회, 둘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신규취업자, 신규실업자들의 조직화, 셋째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노동운동의 선진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여성노조에서 진행되는 노동자기활동은 지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 전국적으로 여태에게 예비여성노동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화활동을 통하여 전국여성노조로 예비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2 투쟁하는 사업장에 지지방문

지지방문단을 구성하여 여성노동자와의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학우대중들이 실천 속에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지속적인 지지방문 속에서 여성노동자와의 뜨거운 동지애를 돈독히 하여 이후에 공동연대투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끈끈한 연대의 불을 만들어야합니다.

1.1.3 의식화사업을 강화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력

여성노동현실을 알리고 여태생 취업고사생애에게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도 직시하고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4 시기별 흐름

- 노동자대투쟁 이전 시기: 노조와의 연대, 노동자기활동결합, 투쟁하는 사업장찾아보기.
- 노동자대투쟁 이후-8월: 여태생과 졸업자의 취업과 실업현황조사, 학내의식화활동, 투쟁하는 사업장에 지지방문(철원권 연대를 구축하자)
- 9월-10월: 학내 교양·교육활동, 1년을 대상으로 구성수첩배포, 투쟁하는 사업장과 시범운동 등의 공동의 실천활동진행
- 11월-: 구성수첩에 접수된 내용 1 추화, 전국여성노동 예비조합원모집

3)여성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 지난 과정의 성과를 이어 여성시민단체의 투쟁에 함께 결합하자
- 학내에서 학우대중에게 연대사업의 성과를 돌려주자
- 개개별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여성시민단체의 활동과 투쟁들을 본질적으로 맞추어줄 수 있도록 연대사업을 진행한다.

1. 여성노동자 투쟁

- 1)의식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할시다.
- 2)비정규 노동자 보호 법적 장치 마련,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투쟁
 - 여성보호조항 폐지에 대해 다시 신실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
 - 생리휴가제 폐지 반대 투쟁
- 3)연대 투쟁

여성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억압과 차별적인 위치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원강하게 투쟁할 수 있는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노동자가 주권되는 세상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성노동자들과 연대 투쟁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쉽지 연대투쟁을 함께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절실히 중요하다고 깨닫고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여성노동자들과 긴고한 연대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렵게만 생각하여 그 중요성에 비해 노력과 준비를 다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투쟁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노동자들의 현황을 알아보고 살펴보면 어디서 어느 투쟁을 하시려는지 미리 예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여성해방의 큰 밑거름을 내딛습니다.
-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함께 진행할시다.
- 투쟁 소식에 민감해야 합니다. 지역별 연대를 일상적으로 진행할시다.

<흐름>

- 3월 3.8 여성의 날 투쟁 함께 진행
- 3월 이후 매일 여성노동권 관련 워크샵 진행
- 5월 노동절 투쟁
- 이후 일상적 연대 - 시가나 시안에 따라 계기와 조건을 살펴 적극적으로 연대

2 여성농민투쟁

- 1)의식화
 - 여성농민의 처지와 조건
- 2)농활을 통한 연대활동
 - ①조직 강화에 바탕이 되는 방향으로
 - ②여농반 활동을 통한 교양 사업
- 3)연대 사업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마련할 수 있는 방도 마련
 - 농활을 잘 하기 위한 토론회 등 개최

<흐름>

- 3월 준비
- 4월 전국여농학연추회의 및 농활 토론회 진행
- 5월 농활
- 6월 말 여농농활
- 8월 연대 투쟁
- 9-10월 가을농활 및 1년 활동 평가 및 후속작업

△ 여성농민투쟁

지난 UR농업협상으로 인하여 식량의존도가 증가하고 농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농가파산, 경자지 상실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다가 IMF이후로 농가부채는 30%이상 증가하여 농민들의 생활은 파탄내고 있습니다.

전체농민으로써 감당해야 할 고통과 함께 여건의 농촌사회에 뿌리있게 남아있는 거부장제와 봉건적 잔재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적 삶은 더욱 억압받고 있습니다.

여성농민들은 농민의 일인으로서 WTO협상 대응을 위한 투쟁과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정이 사회에서 지위와 역할이 현저하고 낮고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은 건담하고 있지만은 농민으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성농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여농에서는 여농농활 시기를 전후로 하여 농촌지역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수월제 및 교육을 실시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 전여농과의 연대와 여성농민반 활동

전여농과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연대속에서 여성농민의 문제를 나 자신의 문제로 받아내고 여성농민의 투쟁의 내용을 학내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여 여태생들도 여성농민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습니다. 아직 여성농민조직이 기존여성농민을 충분히 조직의 묶고 투쟁을 진행할 만큼의 조직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므로 여성농민과의 연대활동은 우선 여성농민경제와 투쟁의 사안을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여성농민반활동을 통해 여성농민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고 기존여성농민 속에서 조직의 기틀이 세워 전여농과의 조직적 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우선 일꾼들부터 여성농민문제의 인식력을 높이고, 대중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도로 선전적의식화사업과 농활활동을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성농민반활동에서도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활동을 늘리고 발굴된 여성농민주체분들을 계속적으로 쟁거낼 수 있는 후속작업을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내용성이 담보된 각종과의 연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 국민농활과 전여농의 농활

연대단체와 함께 농활을 수행하는 국민농활과 여성농민회운동이 잘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범농활지역을 만들고 그 모범을 전국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전라지역에 대한 농활이 세출되고 있습니다. (이치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도 전여농과의 논의 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다. 시기별 흐름

- 농활할 이전시기: 여성농민반원모집과 교양, 학내선전적의식화활동
- 농활할: 여농농활의 사전답사쓰레기의 의미를 지닌 농활행이 되도록..마을일사를 꼼꼼히 여성농민주체의 발굴과 여성농민과의 친분 쌓기
- 농활할 후속작업: 실시내용총화와 여성농민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유지
- 여농농활이전시기: 여성농민분들에게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수월제, 전체농활대원을 대상으로한 교양학교진행, 분반원교양과 프로그램준비, 연대단체로 농활제안(?)
- 여농농활: 전여농의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마을 주체분들을 여성농민회와 연결시켜드리자), 내용성이 보장되고 준비된 여농농활이 되도록..

4)여성민중 생존권 쟁취투쟁과 연대 투쟁

①여성노동자 투쟁

- 여성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인식하자
- 여성노동자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다. 학내에서 다양하게 의식화를 진행하자
-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결합하자.

②여성농민 투쟁

- 1년의 흐름을 잘 계획하자
- 관점을 명확히 세우자-여성농민여학우연대활동으로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의식화, 여성농민이단
- 여성농민들의 정치 의식을 높여가도록 한다.
- 일상적인 연대활동과 농활 당시 분반활동 등을 통해서
- 여성농민들을 투쟁에 나서도록 한다.
- 생존권적 요구가 정치투쟁으로, 반미저주 투쟁으로 될 수 있도록

3. 여태생 노동권 확보 투쟁

- 1) 의식화
 - 여태생 실업문제에 대해서
 - 비정규직
 - 취임구조조정공을 많이 살리지 못하고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게 되는 상황 등)
 - 대학 시절 드러나는 여성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의식화
 - 2) 워크샵(토론회 진행)
 - 38 성과를 이어 여태생 여성노동 관련 워크샵을 진행할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내용 마련하여 투쟁까지 함께 조직
 - 3) 청년 실업 문제와 함께 해결해나가기
 - 4) 연대 투쟁
- 여학생 문제를 여성노동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을 학내에서도 마련할시다

<흐름>

- 3월 3.8 여성의 날 공동 투쟁 및 문화제, 여성노동 관련 워크샵
- 매월 여성 노동 관련 워크샵 진행
- 학기내 대학 내 여성노동 관련 워크샵 등

6기 조사 총노선

1. 조직사상적 과제

1.1. 전역대학의 조직, 사상적 현황

전국의 여학생운동단위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에 있는 총여학생회의 숫자는 약 50여개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전역대학에서 명리되는 대학은 약 30여개 정도입니다.

대부분 총여학생회의 구성은 총여회장, 부회장님 전부 23인 정도입니다.

단대 여학생회 등이 총여운영위를 진행할 수 있는 단위는 각 지역별 12개 대학입니다. 전체적으로 단대여학생회까지 꾸려져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10개 대학 안팎입니다.

단대 여학생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대학이 총여학생회를 제외하고는 기층단위가 거의 없거나 한두 개 정도입니다.

과외학생부는 대학별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단위가 5개 정도입니다.

단대 여학생회는 대부분 처음 여학생운동을 접하게 되는 경우이고 총여학생회 단대 여학생회를 구성하고 있는 건부들의 수준은

대부분 총여학생회가입률이 여학생운동을 처음하거나 2년제인 사람들도인 경우가 많습니.

인정적으로 여학생단위에서 재정산된 사람이거나 보다는 학생회관부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학생단위에서 재정산된 경우에도 소모임 등의 조직적 결집력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

대부분 여학원의 조직생활의 수준 및 나서는 고민은

조직생활이 인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여학생들만이 남자일것들에 비하여 겪는 집단문제가 많이 본데다가 아직 조직생활에 익숙지 않으나 조직생활에 대한 각성의 정도와 실천력이 담보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

또한 조직생활의 경험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건부들의 숫자가 소수이다보니 서로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못하고 조직생활의 형식과 내용을 저해하고 건부들의 고민을 총화하여 분광하여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

사람간의 문제도 고민이 많습니.

대부분 대학이 사람간의 나서는 문제로 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간의 문제는 고질적으로 잘 풀리지 않고 결집되어서 실제적 조직생활에 나서는 커다란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과 사상생활이 거의 결부하지도 못합니다.

학습모임의 경우 방중에 집중학습하는 정도이고 일상적인 학습은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특히 여성학 학습은 지도교사가 부족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학습하여야 할 것인지 조차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정서토론키구독회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1.2. 사상영역의 과제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전민화하자

1.2.1.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전민화를 제기하는 배경

90년대 초반 자주적 학생회파인과 함께 자주적 여학생회,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이 주장되었다. 대부분 여학생회를 뒤져보면 낡은 문서의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에 관한 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운동은 과학적이고 올바른 운동이념에 근거하여 풀어야 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외세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있고 분단이라는 민족적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사회의 조건 및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봉건사회적 기층이 아직까지 뿌리깊게 남아있는 복잡한 사회구조와 환경 속에서 여성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러하기에 특히 여성운동이나 사회주의국가의 여성운동과도 일정 차이가 있으며 제3세계나 다른 나라와도 또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하기에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간 여성운동이론의 검토와 교류를 거울삼아 우리 현실에 맞는 여성운동,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념을 정립해내어야 한다.

이런 요구 속에서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등장하였고 약 10여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학생운동에 대한 총론적인 이론은 정립되어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목표와 과학적으로 여성문제를 해명하고 그것을 풀이할 여러 각본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학생운동의 역사가 그리 짧지 못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성의 모순과 억압의 기원을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남 사회의 여성문제는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하여 지배와 간섭을 받고 있고 식민지 대립정전에 의하여 공고화되어가고 있으며 개관 자본가들의 성차별적인 분지 지배와 착취를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모순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근거하여 여성해방의 과제를 민족자주와 계급해방으로 놓고 이를 해결할 때 인간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향점을 밝혀놓고 있다.

1.2.3.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전민화하기 위한 과제

1.2.3.1.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자

- 여성자신의 모순에서 찾아나자

여성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우선 여성 스스로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는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억압받는 주체적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깨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투쟁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상황도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세상속에서 살던 세가 세상문을 열어놓아도 도망가지 않듯이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 스스로의 주체적의식을 높일시다.

- 여성문제를 사회, 역사적으로 인식을 확대하자

여성문제의 해결이 개인의 주체적인 노력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여성문제가 사회구조적인 원인으로 출발한 것이기에 그 해결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풀어야 한다. 여성문제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넓히는 것은 여성문제를 풀기 위한 초석이다.

1.2.3.2. 여성민중-대학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자

- 여성민중을 중심으로 한 대중관

여학생운동을 풀이하는 주체들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이다. 대부분 운동의 대중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사업은 방향을 잃게 될 수밖에 없고 운동은 소수의 선봉적인 활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학생운동은 대학우의 대학우에 의한 대학우를 위한 운동입니다. 명확히 운동의 주체도 운동의 성향도 대학우 여성민중에게 돌리자야 한다는 철저한 관점을 가지고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간 오랜 세월의 발전적 기부경제적 유속에 의하여 특히 여성민중도 여성민중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의 사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 운동하는 운동가들의 경우에도 학생회단위에서 운동을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 여성운동 내지는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이 있는 이례가 많이 부족합니다. 철저히 여성민중을 중심으로한 대중관을 세우고 투쟁하도록 합시다.

- 민족성, 계급성 획득

여성민중을 중심으로 한 대중관을 세운 후에 중요한 것은 여성문제가 개인과 남자의 문제만이 아니듯이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속에서 민족성과 계급성을 올바르게 획득해야 합니다.

1.2.3.3. 올바른 인성관을 확립하자.

- 여성으로서의 자부심, 인간으로서의 긍지를 가지자

- 여성문제의 주체로서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자

여성민중을 중심으로 한 민족성과 계급성을 획득하였다는 치대라도 여성민중을 위해 조국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인성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전체 여성민중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애국적인 인성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1.2.4.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전민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으로 전입문이 무장하자

-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에 대한 신비감을 없애자.

우리 여학 일꾼 가운데는 자주적 여학생운동 이론의 정립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슨 여성학도 아닌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오직 몇 년 동안 여학생운동을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란 정립을 신비화하고 요원한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기간 어느 운동도 아니 우리가 하는 여학생운동도 어떤 몇몇의 엘리트 학생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이 이해 할 수 없는 이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하다면 정밀 여성운동은 여성학을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은 다만 시기 운동을 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의와 실천으로 운동의 이론은 정립되고 검증되는 것이다. 여학생운동이론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기반을 둔 것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정립해내어야.

- 여성문제와 여성해방이론 등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자.

업게 이어가하면 여성문제 및 철학, 역사, 정치경제학 등 전반에 대한 전문을 넓혀야 한다.

여성문제는 단순히 남자의 성적 차이에 의하여 나타났다고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역사적 유래를 가지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그러하기에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여성문제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조와 역사 및 경제학과 철학 등 폭넓은 학습이 필요하다.

학습의 중요성은 언제 어느 때고 제기되었고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그 실천은 늘 뒷걸음이었다. 그러한 이유는 대부분 시간이 없다거나 무엇을 학습하여야 할 지 모르겠다는 것 또는 학습한다고 하여 다만 나서는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동종의 이유에서였다. 시화는 좀더 복잡해지고 있고 그 안에서 나서는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며 대중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상이태물론적 공격는 날이아 고르며지도 괴할해지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대중 앞에서 단 1분도 자신감 없이 이야기 할 수 없으며 자신 스스로도 늘 짧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가

하고 학위의 여성운동 또한 여러 흐름을 가지고 풀여지고 있기에 그리고 모든 이론은 실천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다보니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완성된 이론이기보다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늘 여학생운동의 이론에 대한 부분, 여학생운동에 대한 사상적 기초의 부실함을 늘 놓고 사상적인 기초가 부족하다보니 여학생운동 전반적인 모호함과 자신감 부족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늘 과제대로 제출하면서 실제로 여학생운동이론에 대한 학습과 연구가 부족했다.

2000년 새로운 세기, 이 땅 이천만 여성, 50만 여학우의 앞날을 비추어줄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에 대한 정립에 더 이상 고삐를 늦추어서 안될 것이다. 우리의 운동적 경험과 선진 사상 및 여러 운동의 이론을 경험삼아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 정립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1.2.2.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인가

1.2.2.1. 자주적 여성상을 밝히고 있다. -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주체로서의 여성

여성은 남성적 전통하게 사람으로서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여성은 사람으로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개조 변혁한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여학우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는 여성민중에 의하여 만들어져 왔다.

1.2.2.2.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여학생운동이 어떠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느냐에 따라 그 사상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학생운동은 기층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전체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두고 풀여가고자 하는 철저한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1.2.2.3.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여성)의 집단주의를 구현한다

- 자주적 대중조직에 의하여 여학생운동은 이루어진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여성민중 중심 취향의 체계이다

1.2.2.3.1.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적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자

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여학생운동이 어떠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느냐에 따라 그 사상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학생운동은 기층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전체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두고 풀여가고자 하는 철저한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여성)의 집단주의를 구현한다

- 자주적 대중조직에 의하여 여학생운동은 이루어진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여성민중 중심 취향의 체계이다

1.2.2.3.1.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적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자

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여학생운동이 어떠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느냐에 따라 그 사상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학생운동은 기층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전체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두고 풀여가고자 하는 철저한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여성)의 집단주의를 구현한다

- 자주적 대중조직에 의하여 여학생운동은 이루어진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여성민중 중심 취향의 체계이다

1.2.2.3.1.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적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자

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여학생운동이 어떠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느냐에 따라 그 사상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학생운동은 기층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전체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두고 풀여가고자 하는 철저한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여성)의 집단주의를 구현한다

- 자주적 대중조직에 의하여 여학생운동은 이루어진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여성민중 중심 취향의 체계이다

1.2.2.3.1.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적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자

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여학생운동이 어떠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느냐에 따라 그 사상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학생운동은 기층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전체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두고 풀여가고자 하는 철저한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여성)의 집단주의를 구현한다

- 자주적 대중조직에 의하여 여학생운동은 이루어진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여성민중 중심 취향의 체계이다

1.2.2.3.1.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적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자

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여학생운동이 어떠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느냐에 따라 그 사상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학생운동은 기층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전체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두고 풀여가고자 하는 철저한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여성)의 집단주의를 구현한다

- 자주적 대중조직에 의하여 여학생운동은 이루어진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여성민중 중심 취향의 체계이다

1.2.2.3.1.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적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자

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여학생운동이 어떠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느냐에 따라 그 사상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학생운동은 기층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전체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두고 풀여가고자 하는 철저한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여성)의 집단주의를 구현한다

- 자주적 대중조직에 의하여 여학생운동은 이루어진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여성민중 중심 취향의 체계이다

1.2.2.3.1.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적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자

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여학생운동이 어떠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느냐에 따라 그 사상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학생운동은 기층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전체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두고 풀여가고자 하는 철저한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여성)의 집단주의를 구현한다

- 자주적 대중조직에 의하여 여학생운동은 이루어진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여성민중 중심 취향의 체계이다

1.2.2.3.1.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적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자

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여학생운동이 어떠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느냐에 따라 그 사상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학생운동은 기층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전체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두고 풀여가고자 하는 철저한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여성)의 집단주의를 구현한다

- 자주적 대중조직에 의하여 여학생운동은 이루어진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여성민중 중심 취향의 체계이다

1.2.2.3.1.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적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자

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여학생운동이 어떠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느냐에 따라 그 사상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학생운동은 기층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전체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두고 풀여가고자 하는 철저한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여성)의 집단주의를 구현한다

- 자주적 대중조직에 의하여 여학생운동은 이루어진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여성민중 중심 취향의 체계이다

1.2.2.3.1.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적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자

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여학생운동이 어떠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느냐에 따라 그 사상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학생운동은 기층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전체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두고 풀여가고자 하는 철저한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여성)의 집단주의를 구현한다

- 자주적 대중조직에 의하여 여학생운동은 이루어진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여성민중 중심 취향의 체계이다

1.2.2.3.1.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적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자

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여학생운동이 어떠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느냐에 따라 그 사상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학생운동은 기층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전체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두고 풀여가고자 하는 철저한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여성)의 집단주의를 구현한다

- 자주적 대중조직에 의하여 여학생운동은 이루어진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여성민중 중심 취향의 체계이다

1.2.2.3.1.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적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자

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여학생운동이 어떠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느냐에 따라 그 사상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학생운동은 기층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전체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두고 풀여가고자 하는 철저한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여성)의 집단주의를 구현한다

- 자주적 대중조직에 의하여 여학생운동은 이루어진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여성민중 중심 취향의 체계이다

1.2.2.3.1.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적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자

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여학생운동이 어떠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느냐에 따라 그 사상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학생운동은 기층여성민중을 중심에 두고 전체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두고 풀여가고자 하는 철저한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여성)의 집단주의를 구현한다

여학생운동가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1.3.1.1.1.5. 자주적인 여학생운동관

- 승리에 대한 신념 기반

여성문제는 그 어떤 역사사건이나,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는 더욱이 식민적 조건, 기형적인 경제상황과 봉건적 유속에 의해서 문제가 복잡 단란하며 그러다보니 해결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으며 한 해 두 해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또한 기존당위 역량의 한계가 좋지 않아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성과도 쉽게 눈에 띄지 않기도 합니다. 이를 때 필요한 것이 멀리 내다보고 운동에 대한 승리와 낙관을 가지면서 여유를 가지고 풀이 가는 것이 필요함입니다.

지난 시기 여성민중의 투쟁에 의하여 저층의 여성의 조건이 상당히 개선된 듯 보였으나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여학생운동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1.3.1.1.1.6. 자주적이고 혁명적인 생활기풍

- 절실관철

철저하게 조직의 결정과 대중의 힘에 근거합니다. 대중만큼 지혜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혁명적인 일꾼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바로 대중의 힘을 믿지 못하고 대중의 수준을 스스로 갖대길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투쟁이나 사업을 조직하는데 대중을 중심이 두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을 중심이 두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대중 속에서 지혜를 찾는다면 당장 대중은 우리 일꾼들을 믿고 따라 올 것입니다.

자신에게 분권할 일이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최대한 한 바 책임을 열정적으로 짊어지려 합니다. 어느 세부사항 하기로 했던 일이 잘 되지 않고 폐기되거나 유아무야 넘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도 부족한 것이 사업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고결은 조직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한번 해기로 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는 것은 선택적인 구조가 아니라 관철하여야 할 구호입니다.

- 자력갱생

다른 사람의 창조물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배껴서 하지 말고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려갑니다. 우리 여학 일꾼들은 모두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듯이 모든 일꾼들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과 여성해방은 바로 2000년 범국민 반미항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몸이 때문입니다.

- 낙관적인 생활기풍

울바른 변혁이론을 터득하고 여성해방의 단계를 변혁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 등, 자신의 처지와 조건만을 내세우면서 안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저능까지 있습니다. 우리 운동의 수준이 아직은 이렇듯이지만 승리는 언제나 확정적이기에 우리는 한시도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군다나 민중의 삶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니까요

1.3.1.1.2. 높은 정치실무적 자질을 가져야 한다.

1.3.1.1.2.1. 정세에 민감하고 압록 높은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당면한 정세와 정세 속에서 여성정세를 꿰어낼 수 있는 인식을 가져야합니다. 특히 대부분 남성정세, 지배자정세의 인본과 이데올로기 공개 속에서 여학생운동 여성민중중심의 정세를 파악하는데 능동하여야 합니다. 정세에 민감하며 각 여성단체의 동향 및 경제정세를 주도면밀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1.3.1.1.2.2.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1.3.1.1.2.3. 대중을 선전선동하는데 능동하여야 한다.

1.3.1.1.2.4. 조직은 운영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1.3.1.1.2.5. 운동과 대중을 진두지휘하는 능동성을 갖추어야 한다.

1.3.1.1.2.6.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되어야 한다

여학생운동은 변혁운동은 강화되고 풍부화시켜나가기 위한 것이지, 즉 전문성에 기반한 대중 의, 조직화를 제대로 이루어야하며 여학생운동에 대한 막대한 자부심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학생운동의 조직사상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과학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이라는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근거하는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운동으로 되기 위한 기본전제조건입니다. 여학생운동의 자신의 처지에서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눈을 뜨게 하여 자기 삶의 주민주체로, 사회변혁의 주체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여학생들이 살아온 경로를 제대로 알고 투쟁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여학생운동의 총적 방향은 여학생운동을 자주적 주민주체로 일깨우고 투쟁사상사태와 자주, 민중, 통일과 전선으로 민족자주정당수립과 통일조국건설을 이룩하고 인간해방을 안아오는 것입니다.

1.3.1.1.3. 여성민중에게 간단한 사업방법과 사업방법을 가져야 한다.

1.3.1.1.3.1. 위에서 아래로 도와주는 방법

1.3.1.1.3.2. 실정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방법

1.3.1.1.3.3. 정치사업을 선행하는 방법

1.3.1.1.3.4. 중심고리를 찾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방법

1.3.1.1.3.5.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는 방법

1.3.1.1.3.6. 모든 투쟁과 사업을 격식과 틀없이 통크게 하는 방법

리를 높여놓거나 아니면 아주 형식적으로 되어 버릴 수 있다. 추후총화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추후총화를 할 주체의 준비가 필요하다.

추후총화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일꾼들이 자신을 점검하고 총화할 수 있는 틀거리를 내어야 한다.

그리고 추후총화를 진행할 때는 무작정 생각나대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모습이 성과였으며 그 요인은 무엇이었고 그렇지 못하였던 것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과학적으로 자신을 분석하고 고민하여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총화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과제를 내어야 하며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꼭 자신의 총화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하여 비판의 말을 하여야 하며 설혹 받아들이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우선은 접수하고 끝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모든 회의와 모임 속에서 함께 하는 사람의 고민을 잘 총화하자
1.3.1.2.3.3. 조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자

조직생활에서 조직성원의 위임분담 및 활동총화와 고민총화를 기본에 두고 진행하자
동지애를 구현한 많은 예시를 읽고 습득하며 실천과제를 내오자
아니도 게임, 진실게임, 동지에게 편지쓰는 날 및 동지 애경사 생기기 등등
1.3.1.2.3.4. 평가를 잘하자

평가의 중요성
평가를 잘해야 성과점을 생기고 오류 한계를 줄여 다음에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극복대안
평가문서를 남기자
다음 사업준비 시 지난 평가 내용을 꼭 숙지하자
평가를 중앙에서 몇몇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중과 함께 진행하고 돌려주자
평가를 남기지 말자 - 평가하는데 1박 2일을 남기지 말자.
나중에 한다고 하면 또 놓치게 되고 정리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평가의 정확성을 만들자
평가들을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내오다.
평가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리거나 함께 회의를 조직하고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내용을 공유한다.

1.3.1.2.3.5. 비판문화를 일상화하자

혁명적 조직생활과 혁명적 원칙을 위반할 때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혁명적 비판이 가해져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대의를 감행하는 데도 방해받지 않게 될 것이며 동지들간의 신뢰, 믿음 또한 흔들릴 것입니다.

비판과 사상투쟁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혁명적으로 단련하는 유효한 무기입니다.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체제에 고쳐나갈 수 있으며 일꾼들 속에서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직 안에 비판과 사상투쟁의 기풍이 확립되어야만 온갖 불건전한 사상경향을 극복하고 조직사상적 통일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일꾼들 모두가 튼튼한 혁명가가 될 것입니다.

▷ 비판과 자기비판의 원칙

-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덮여주지 말고 제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비판을 진행할 때에는 평화적인 분위기나 아니라 날카롭게 사상의 각을 세우고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 결함을 지적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함을 발상시킨 원인과 고쳐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비판을 받는 사람은 동지적 사랑의 표현으로 알고 혁신하게 받아들여야 대담하게 고쳐나갑니다.
- 혁신하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총화하고 주변에서는 잘 혁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는 결함을 고쳐주었다는 자기 책임성이 늘 발전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 비판과 자기비판의 방법

-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꼭 회의사항이 아니라 모든 공간을 활용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 공식적이고 정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실천을 중심으로 진대되어야 합니다.
- 1.3.1.2.3.6. 학습생활을 정제화하자
- 1.3.1.2.3.7. 간부일꾼의 역할 및 분공을 잘하자

1.3.2. 여학생들의 건설 강화하자

1.3.2.1. 기층 여학생회 건설에 사활을 걸자

변혁정세가 발전함에 따라 변혁의 자주의식과 조직적 결속은 변혁운동에 대한 더 높은 요구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운동의 대중성에 대

1.3.1.1.4. 실천적으로 여학생운동가가 자주적 여성상을 구현하여 돌아가야 한다.

모든 사상과 이론은 생활상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사상은 생활의 작은 말이나 태도에서 학우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도구보다도 그로써 교육, 실천시키는 강위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주적인 여성상을 간부일꾼 스스로 구현할 때 대중은 헌신 및 믿음을 줍니다.

이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적도 정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학생운동을 두고 수십 년의 투쟁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학생운동과 현상도 없는 모습만으로 비교하여 돌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눈앞의 성과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면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음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하고 내가 조직한다는 결의로 해왔던 지난 여학 일꾼 선배전사들을 생각하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1.3.1.2. 자주적 여학 일꾼을 만듭니다.

여학생운동가 재상상을 위해 간부단련 사업에 대한 고민은 예전부터 해왔고 지금 우리의 운동수준을 봤을 때 무리한 발전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이고 건전한 운동을 풀이하는데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추제를 계속생산 제 발전입니다.

먼저 투쟁 속에서 일꾼을 찾고 대중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학습, 조직생활, 실천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며 이것은 즉 고 조직생활, 변혁실천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1.3.1.2.1. 사상학습을 실속 있게 해야 합니다.

학습과 생명의 양식을 통해 사상정리를 확보합니다. 개인학습과 집단학습을 단위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펼쳐 나갑니다. 학습은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하는 기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제론을 모든 회의와 모임 속에서 전개합니다. 정세에 대한 이해부족은 사업과 투쟁에 나서는 문제들의 근본원인을 잘 꿰칠 수 없 합니다. 개별적 정제와 구체적인 정제를 잘 분석하여 주제적인 관점에서 정제 토론을 일상화합니다.

1.3.1.2.2. 자주민주통일 실천과 결합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여학생운동이 전체운동에 강화복되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사색을 통해 운동이론을 창출함과 동시에 그것이 실천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1.3.1.2.3. 특히 혁명적은 전후적인 조직생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후적인 조직생활은 학습을 키워내는 종합적인 훈련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혁명회 단위에서 무적이나 실행하기 어려우려는 부분입니다. 조직생활을 하는 한데 조직생활을 통하여 교양과 지도를 받으며, 비판과 자기비판 속에서 조직생활을 키워가도록 자라게 보도록 두를 분장하는 정도라면 하는 편의적인 경향이 아주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의 활동력을 떨어뜨리고 사상의지적 결함과 동지적 결합을 확실히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조직생활을 구성원들을 변혁운동가로 키우는 과정인 만큼 모든 구성원들에게 조직적 임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상세히 도와주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결합을 고쳐 나가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조직의 짧은 자질을 키우는 부모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1.3.1.2.3.1. 사업사업을 결합하자

운동을 하는 과정은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이다. 투쟁을 배우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자. 운동의 첫걸음은 동지를 얻는데서 출발한다. 우리는 과연 동지라는 것, 함께 하는 여학 일꾼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는 과연 동지라는 것, 함께 하는 여학 일꾼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는 과연 동지라는 것, 함께 하는 여학 일꾼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는 과연 동지라는 것, 함께 하는 여학 일꾼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가?

1.3.1.2.3.2. 추후를 잘하자

추후총화를 정제화하자
사업에 비바드하면 모여서 사업논의하고 정리하는데 급급하다. 하지만 모든 사업을 하는 주체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일 진행할 리 만무하다. 대부분 사업이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상태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서로를 점검하고 혁신의 과제 내오는 것은 기회의 유효성을 치는 것처럼 필요하다. 그런 문제가 타던면 그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총화를 정제화하자
추후총화란
그저 솔직한 모든 것을 동지와 조직 앞에 내보이는 것이라는 것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다. 자칫 잘못된 추후총화라는 것이 서로의 남

한 요구입니다. 즉 여성민중의 변혁적 요구가 미국의 경제침탈 속에서 여성의 생존권 위협을 경험하면서 생존권의 요구에서 반이 투쟁 요구로 이어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여성민중과 여학우 대중의 의의적 된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것은 운동을 더욱 광범위하게 조직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 여성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여대생은 지금까지 예비 여성실업자로 있으면서 자신의 투쟁력을 묶음 조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학생회가 근위적으로 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으로 자기 위상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우리 일꾼은 지금 몇 명의 학우를 만나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투쟁하고자 하는 여학우에게 자기 조직을 주고 투쟁하고자 하는 열정을 표현해 내지 못하는 여학우들에게는 여대생의 인내성과 열정적인 분장을 일깨워 주면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죽기위해 한몸을 만드라 여학우를 더 만나고 여학우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3.2.1.1. 기층여학생회를 건설의 중요성 및 올바른 방향을 갖자

- 기층여학생회 건설의 원칙과 경로
- 자기대중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자

여학우 대중을 광범위하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인 자기대중을 의 · 조직화하는 것과 더불어 무각위 대중에 대한 대규보적인 선 · 조직화 방법도 있습니다. 그중 후자 무각위 대중 의 · 조직화에 대한 단위의 실천과제는 일상적으로 제출이 되나 전자, 즉 자기 대중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부터 실천과제를 도출하는때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층 여학생회가 건설되어 있지 않은 단위가 많으면 자기 대중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따라서 놓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대중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부심만 있다면 원칙을 놓치지 않고도 여학생회의 기층을 건설 할 수 있습니다.

1.3.2.1.2. 여학생회 건설의주제를 명확히하자

1.3.2.1.3. 여학생 단위 건설에 대한 구체적, 장기적 지도와 계획을 수립하자

1.3.2.1.4. 지도가 핵심이다.

▷ 자주적 사업방법

▷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합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지금 왜 이 투쟁이 제기되었는지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으로 일단 높은 정당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투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기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부 일꾼이 사업과 투쟁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자각으로 자기 단위의 과제에 맞게끔 투쟁을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기층단위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문제의 중심고리를 잘잡고 풀이하여야 합니다.
▷ 또한 모범을 창조하고 그 모범을 일반화해야 합니다.
▷ 기층 지도사업의 자세와 원칙

- 이신각칙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 일꾼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상시켜야 합니다.
- 단련에 공복까지 맡고 어려움을 태일수록 대중 속으로 간부들과의 대화 토론을 통하여 극복해야 합니다.

1.3.2.2. 전여대학생회 과파부, 소모임까지 전일적인 체계를 구축하자

상중조직의 건설의 정황을 계승 발전시키자
대의제도를 잘 발상하자
★ 기층건설의 모범을 만들어내자
○ 소모임 건설

기층이 약한 대학에서나 단체 여학생회에서는 모두들 소모임 건설에 대한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모임을 통해 여학생회 사업의 내용을 교양하고 지속적으로 묶어내어 구체적인 자기 대중을 확보하게 되고 이 우 여학생회 핵심 일꾼을 키우는 유력한 방법이 됩니다.

▷ 소모임 주제를 꼭 세우자.

어떤 사업이 되었든지 핵심이 확보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래있는 소모임 사업을 계획한다면 우선 주부부터 튼튼히 세우고 주체의 비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모임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대부분 여학생회 소모임은 단순히 조직적 어려움을 면하기 위하여 재정상 구도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하여 한시적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러다 보니 행한다다 사름과 건설하고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개별 한두 명만이 남는 상황이 되어 결국을 모음이 왜곡되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모임의 목적 그것이 합의되는 일꾼 및 학우들을 모아내야 합니다. 그저 무리잡으려다가 묶었다가 투쟁의 내용이나 사업내용에 어 합의되지 못하고 떨어져나가는 학우들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대중사업과 투쟁에 여학생회와 인원이 있었던 학우들은 소모임으로 묶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여학단위 사업의 후속작업은 모이던 소모임에 묶이게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 이런 소모임을 만들어봅시다.

5. 세내기들의 사상이식 수준을 “ 더 넓히 더 높이”

해가 갈수록 세내기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강합니다. 그만큼 억압과 구속을 싫어하고 자주성이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교활해지는 제국주의 사상, 문화적 침탈은 사람의 눈과 귀를 기리고 개인주의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가 갈수록 세내기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의식수준은 낮아지고, 학생회라는 공동체에 묶이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일꾼 재생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세내기 때부터 올바른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빠르게 핵심으로 키워내야 할 것이 절실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꾼 부족의 막대한 고리는 세내기 시기에 사활을 걸면서 풀이 나가야 할 때입니다.

1) 여성문제에 대해 학습·토론시 낮은 수위부터 한국사회의 모습에 대해 말해줘주자.

여성문제에서 한국사회의 성격 및 구조적 모순이 커다란 원인이 되는 것만큼 여성문제에 대해 학습, 토론할 때 일상적으로 고민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처음부터 신배기 쏟아놓기 보다는 낮은 수위부터 조금씩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내기 스스로가 여성문제와 한국사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2) 매월 역사적인 날(4.19/ 5.18.)에 대한 교양토론 반드시 하고 진행하자.

3) 2학년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철학, 우리사상에 대한 기초학습을 진행하자.

6. 구체화 학습 계획

단위의 설정, 정세의 변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세내기

기본 소모임 활동 속에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고 여성문제 인식의 큰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합니다.

학습 계획의 예 >

| | | 여성화 학습 | | 사상학습 |
|------|-----|--------------|--------------------------------|---------------|
| 1학기 | 2월 | 새로운세우터 | 기본 의식화 실천과 세터 사업을 통한 의식화 | |
| | 3월 | 대학출범식 | 지리오는 과정속에서의 성찰할 고정화에 대해, 여성화회란 | 학생회란 |
| | 4월 | 한중연대위원회대회 | 성 상문화 | 419, 한중연대만 |
| | 5월 | 전여대합출범식, 활동할 | 성폭력, 전여대합출범식 | 518, 반미자주에 대해 |
| | 6월 | 기말고사 | 호주제 | 8.15 |
| 여름방학 | 7월 | 여름운동 | 일본군 위안부 문제 | 통일 |
| | 8월 | 통일 대숙진 | 기차촌, 심애, 여성과 통일 | 8.15 |
| | 9월 | 여성문화제 | 여성운동사 | 한국근현대사 |
| 2학기 | 10월 | | 여성운동사 | 한국근현대사 |
| | 11월 | 선거 | 자주적 여성화,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란 | 자주적 학생회란 |
| | 12월 | | 여성화 강의, 서여성화 강의 | 한국사회의 성격 |
| 겨울방학 | 1월 | | | 철학 |
| | 2월 | | | 철학 |

2) 세내기 이상의 여학생운동 일꾼

세내기들보다는 학습률이 있어 시기별로 크게 구매반지는 없이도 되어 정세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수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여학생운동을 다루면서 깊이 있고 풍부하게 학습하고 토론하고 연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보장하는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면 더욱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학습 계획의 예 >

※장기적인 목표속에서 올해의 핵심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고려해야 할 지점

1) 지금까지 기초를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항상 중요하게 제기되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단위에 주체를 세워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단체 또는 파에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 주체가 핵심일꾼으로 커지지 못하고 지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단위에서 총여학생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과정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실제 총여학생회 역량이 부족하여 주체를 내실있게 꾸준히 지도해내지 못했던 부분과 함께 주체의 준비정도 부족이라는 객관적인 한계도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반도 어딘데다 여학생운동을 처음 접하게 된 주체가 스스로 길을 잡고 역할을 해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1년 뒤 대졸사업과 사립사업에서 성과가 남지 않았을 때 자기 성과를 찾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과가 이어지지 못하고 해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를 세울 때, 특히 단체 여학생회(부)를 세울 때에는 기초에서 경험을 쌓은 주체를 중심으로 기초의 원으로 세우고 자생적으로 재생산 구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건설을 위한 역량배치를 할 때 되도록이면 현재 조건에서는 단체여학생부를 건설하기보다는 파여학생부를 건설하는데 먼저 힘을 집중하고 파여학생부를 통해 파여회(부)를 내실있게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핵심 일꾼 재생산 구도의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그 기초로서 세내기들을 빠르게 핵심으로 단련시켜야 할 요구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총여학생회 산하 소모임을 건설하고 잘 꾸려가야 합니다.

1단계 (2002년) - 총여학생회 소모임과 파여발특위 사업이 핵심!!

1)총여학생회 소모임 건설

①전단체에서 골고루 세나기를 모집하고 다양한 활동과 풍부한 학습속에서 빠르게 핵심으로 길러낸다.

② 연말의 선거 이후에 다음해의 소모임 주체를 맡을 최소인원을 남기고 각 파여회(부)장으로 배치한다.

(비로소 파여부(회)가 있던 파에도 새롭게 튼튼한 주체를 세워낼 수 있다.)

2)파여부(회)건설과 파여발특위 건설

①간담회를 통해 파여부(회)를 세우고 파여발특위를 건설하여 소조활동등으로 집중지도, 핵심으로 키운다.

②연말의 선거시기 파여부(회)장을 중심으로 단체 여(부)회를 세워낸다.

(비로소 단체 여학생부(회)가 있던 단체에도 새롭게 튼튼한 주체를 세워낼 수 있다.)

2단계 (2003년) - 파여부(회), 과소모임 사업과 단체 여학생(부)회 활성화가 핵심!!

1)파여부(회), 과소모임사업 활성화

①전년도 총여학생회 소모임이었던 일꾼들이 파여회(부)장이 되고 그 일꾼들을 중심으로 과소모임을 건설, 최기승인 과에서부터 여학생운동 흐름을 풍부하게 만들어 낸다.

②파여학생운동의 정황을 만들어 낸다.

2)단체 여학생부(회) 활성화

①여학생운동의 고민과 경험이 있는 주체가 서게 됨으로써 단체에서 여학생운동 흐름을 만들어 낸다.

②파여부(회)와 함께 단체 고유의 사업의 만들어 간다.

3단계(2004년) - 전일적인 총여학생회 대외체계 구축, 대외체계 강화!!

흐름이 만들어진 파단위와 단체 여학생회를 내실있게 지도하여 여학생회를 올바르게 자리 매김하자.

☞지금까지 가상으로 예를 보았습니다.

각 대학의 처지와 조건 속에서 장기적 목표와 계획이 어떠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봅시다.

그러한 과정에서 올해 핵심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시다.

3. 일꾼 혁신운동 - “엇기나는 일꾼이 되자”

핵심의 역할을 비약적으로 높여야 할 때입니다. 운동대중과의 승패는 핵심들의 실력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운동이 특별하고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실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꾼들이 핵심으로 남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현실입니다. 기존의 여학생운동을 하는 일꾼들은 예외없이 “내가 바로 핵심이다”라는 자각을 깊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의 실력은 머리에 든 것이 많은 것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의 실력은 대중을 감동시키고, 대중에게 투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대중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지식과 번드르한 말만으로는 이를 수 없습니다. 창기가 나는 꽃

| | 중간학번의 역할일꾼 | 핵심일꾼 |
|-------|---------------------|--|
| 사상학습 | 체계적으로 진행하자 | 깊이있게 진행하자 |
| 여성화학습 | 여성정책, 노동, 가족, 성, 문화 | 다양한 분야의 여성화 관련 논문 |
| | 여성운동사, 여성화 이론 | 여성운동사 거부정책 이론, 여성해방론, 여러 분야의 여성화 관련 논문 |
| | 여성과 통일(중간 수위) | 여성과 통일(높은 수위), 민족주의와 여성, 여학생운동과 화성운동의 관계, 여성운동과 변혁운동의 관계 |

<조직적 과제>

조직사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구체적 대중에 대한 의조직화와 무작위 대중에 대한 의조직화 사업을 어떻게 계획할 지에 효과적으로 진화시킵니다.

구체적 대중에 대한 의조직화 사업은 일꾼 재생산 구도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모임 사업과 기초 건설을 통해 대중속에서 핵심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작위 대중에 대한 의조직화는 일상사업과 대중사업을 통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또 기층에서 활동하는 핵심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현재 전여대의 조직발전의 요구속에서 전일적인 체계 구축을 통한 여학생운동 대중화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허투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만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 구도(목표)속에서 구체적 계획을 내어 오고, 상시적 총화점점과 내실있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사관철 해 나갈 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요구되는 부분은 장기적 전망과 계획 속에서 올해의 과제와 목표를 도출해 내는 것, 그리고 일꾼 재생산 구도 마련과 핵심 발굴하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1.전여대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자

1) 대학여학생운동을 강화

전여대원은 그 이름대로 전국 여대생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전여대원이 조직의 위상에 맞게, 여대생들을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일깨우고 진정한 여성해방, 인간해방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각 대 여학생운동을 강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여학생회부터 총여학생회까지의 전일적인 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학생회에서 담아내는데 부족한 내용을 더 풍부화시키고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과소모임까지 건설해야 합니다.

2) 지역여학생운동 강화

조직발전의 요구와 운동발전의 요구에서 지역여대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여대원을 세워내는 것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의 공동투쟁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그 속에서 건설된 지역여대원의 역할을 높이고, 지역여대원이 하는 지역 공동투쟁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지역에 지역여대원을 세워내야 합니다.

3) 이후부터는 계속 지역여대원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3) 다양한 대학내 여성조직과의 공동투쟁 활성화

정세의 요구대로 여성민중의 요구대로 투쟁을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사상과 정견을 떠나 여성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양대 선거,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 성폭력·성애에 근접 투쟁 등을 다양한 대학내 여성운동조직과 힘의 지혜를 모아 투쟁해 나가시디.

2.대학의 장기적 계획(장후 3년)을 수립하자.

대학 여학생운동의 주체역할 강화를 통한 운동대중화가 절실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장기적 계획(장후 3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속에서 올해의 목표와 핵심과제를 고민해봅시다.

예) 00대학 여학생운동 강화 발전을 위한 계획

3년후 (2004년) 목표 : 전일적인 총여학생회 대외 체계 구축

에는 자연스럽게 별, 나비가 모이게 마련입니다. 애써 보아주려 하지 않아도 민중적 풍성과 생활의 태도, 작은 실천으로부터 대중에게 신가 쌓였을 때 주위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러한 일꾼이 하는 말 한마디에 대중이 공감하고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자주적 여학생운동가가 됩시다.

1)학습의 혁신

①매일 학습을 결사관철하자

“하루라도 학습을 하지 않으면 진을 잘 수 없다”는 각오로 매일 학습을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장이든 두장이든 매일 매일 진행하는 것입니다.

②실천활동과 결합하자.

매일 매일 전체운동대, 여학생운동부 친분이 있는 통신, 선배, 후배까지 더 나아가서 무작위 대중을 만날때까지도 자기 학습한 내용 알려내는 등의 방도로 학습한 것을 실천으로 외화해냅니다. 그럴 때만이 학습한 것이 자기되게 되고, 동시에 일상적인 대중 의식화과정으로도 됩니다.

2)투쟁의 혁신

①일상적으로 대중을 만나자.

-수집운동 전개 : 하루에 3인 이상을 반드시 만납니다.

②장기적 적극적으로, 대중의 정세에 맞게 대중을 만나자.

③안정대 여성민중의 투쟁의 요구에 대해 깊이 고민하자.

④전학전술, 전체투쟁과의 결합, 참신한 투쟁방식에 대해 항상 깊이 고민하자.

3)생활의 혁신

①전투적인 조직생활

②생활력을 드높이자.

③결사관철, 자력경쟁, 낙진적 생활 기풍

4. 세내기 사업에 목숨을 걸자

세나기를 조직화하고 단련시키기 위한 구도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소모임을 중심으로 1년의 활동과 학습계획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세웁시다. (겨울 수련회 자료집 참조)

세나기의 고민을 세나기의 입장에서 일상적으로 풀고자 우리 의식수준을 꾸준히 높여냅시다.

5. 파라이드 사람사업 “하나가 열 명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움직이게 하자.”

핵심일꾼부터 세내기까지도 모두가 자기 대중을 가집니다.

자기 대중에게 일상적으로 의식화 사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대중들이 다른 대중에게 다시 의식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하는 것입니다.

6. 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에게도 총여학생회가 자기 쪼리임을 인식하게 하고, 대학의 전체운동중에서 여학생운동에 한 이해를 높여내자.

①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에게도 총여학생회가 자기 조직임을 인식하게 하자.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투표를 건설된 여학우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에게도 자기조직으로 느끼고 투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을 일상적으로 목격의식적으로 만나자.

-계모임 수준에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구도를 마련하자.

그속에서 일상속에서 드러나는 가벼운 여성문제부터 중급대를 형성합니다.

②대학의 전체운동중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자.

-총학생회 총운부, 단체 운영위 속에서 총여학생회의 사업해설과 교양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1,2장이라도 교양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교양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과 투쟁 그리고 대학내 정치학교 등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풀어나자.

③여학생운동 토론회를 만들어 보자.

여학생운동 토론회는 대학내 여학생운동의 고민과 수준을 높이는 데 비교적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여학생일꾼들끼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골간운동을 여학생일꾼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그 외에도 관심있는 많은 일꾼들과 학우와 함께 합니다.